



기획시리즈

이 상 응 / 향촌 조경수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행정3리 250

(0339) 353-0747

칠엽수의 묘목 생산과 성목 재배

칠엽수 가 조경수목 중에 고
급수로 취급되는 이
유는 알만하다.

우선 나무 줄기의 껍질과 잎의 질
감이 거칠고 뚜렷하다. 한여름의
질은 녹음, 꽃과 열매가 그런대로
아름답고, 새눈이 터져 나올 때에
도 애벌레가 곤충으로 탈바꿈하
는 것처럼 강력한 생명력에 시선
이 끌린다. 그 잎은 거칠은 감을
주면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
는 듯하다.

아무튼 어느 한가지를 보아도
다른 나무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
정이 들어 있다.

그리하여 예술의 나라 프랑스
에서 마로니에의 거리를 아름답
게 조성하였나 보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무
만 보면 좋다고 하겠으나, 필자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고급수종이
많이 재배되어 전국토의 공원화
에 큰 몫을 하기 바란다.

칠엽수 재배에 알맞은 입지 조
건은 첫째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참흙땅이 좋으며, 서북쪽이 막힌
곳이면 더욱 좋겠다.

특히 배수가 불량하면 월동시
에 동해피해를 받게 되어 제일 위
의 눈 정아가 죽게 되고, 도장한
2차 성장지도 동해를 받아 죽게되
어 정상적인 나무모양 재배에 곤
란하다.

칠엽수 재배가 다른 수목보다
어려운 점은 나무의 키가 1.5m정
도 이하일 때이다. 따라서 토심은
깊고 비옥하여야 건강하고, 모양
좋은 나무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칠엽수의 특성은 어린나무 때
에 음수의 성질을 나타내며, 나무
의 키가 1.5m 이하인 때에는 조기
낙엽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토양이 너무 건조하고 태
양광선이 강하여 복사열이 심한
관계에 있으며, 여름에 어린 나무

잎이 붉게 타 죽는 이유는 탄저병
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칠엽수 재배에서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칠엽수의 묘목생산

칠엽수의 종자는 모양, 크기,
색깔이 알밤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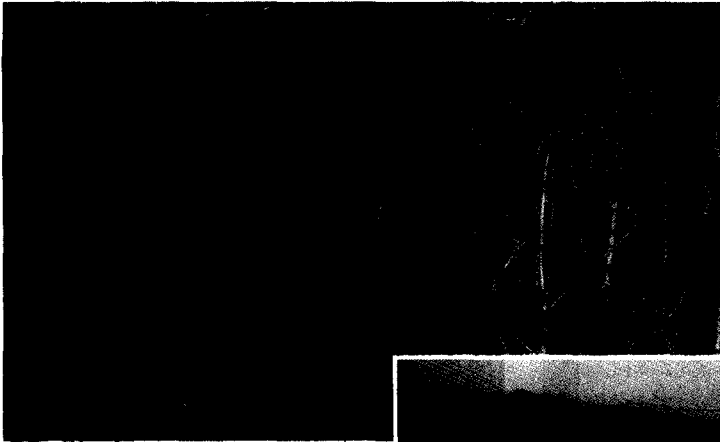
국내에서 채종되는 양은 매우
극소수이며 소련,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실
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종자라면 도
입종보다 매우 충실하고 발아율
도 높다.

본지에 기술되는 사항은 많은
종자를 파종할 때의 과정을 기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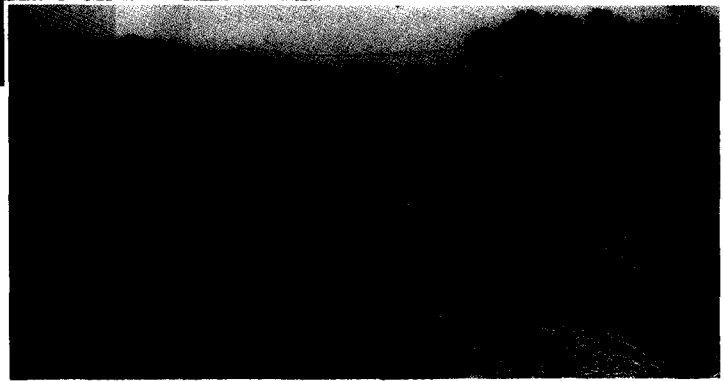
1) 종자 다루기

국내 종자는 9월 중순경 완숙
되므로 관심을 기울여 땅에 땅을
쳐 놓고, 종자가 물리적 상처를



▲ 퇴비이용 재배포
(상태가 매우 양호함)

▼ 화학비료 이용 재배포
(상태가 좋지 못함)



입지 않도록 채취한다.

종자의 저장은 매우 까다롭다. 너무 건조하면 배가 말라 발아력을 상실하고, 과습하면 부패하여 변질되므로 구입 후 즉시 파종하는 것이 상책이다.

종자를 노천매장하면 겨울동안 종자가 발아되어 어린 뿌리가 길게 나오고 건사저장을 하여 두면 종자의 배가 마르는 경우도 있고 열을 발생하여 종자가 부패됨을 잊지 말자.

2) 종자 파종

수입되는 종자는 10월말~11월 초에 종자가 들어오게 되므로 종자를 재처리하려 하지 말고 즉시 파종한다.

파종준비는 가급적 일찍하여 들수록 좋다.

비옥도가 보통인 토양이라면 300평에 3000kg정도의 완숙된 퇴비와 복합비료 3포 정도를 넣고 경운후 노타리 작업을 하여 둔다.

파종상의 넓이는 1m, 고랑의 넓이는 40cm 정도로 하는데, 노타리 작업을 한 상태에서 종자를 콧고 관리기로 고랑될 곳의 흙을 파서 덮으면 고랑, 삼목상을 만들 필요없이 매우 편리하다.

종자넣기는 파종후 몇년제에 묘목을 출하 하느냐에 따라 거리 간격이 다르겠으나 파종후 2년정도부터 출하한다면, 한 번의 길이가 1m인 묘판에 10개씩 20~25cm 간격으로 넣으면 충분하다.

참고적으로 파종후 1년생 묘목으로 출하하면 재배경영에 별 소득이 되지 못하므로 1년생묘로 전체의 반가량 출하하고 나머지를 기르면서 묘목을 판매함이 좋은 경영이다.

파종방법은 노타리 작업을 실시한 다음 정식으로 파종상 몇 고랑을 내지말고 파종상의 넓이 1m, 고랑의 넓이 40cm가 되도록 줄을 띄워 표시하던지, 아니면 관리기로 고랑이 될 곳을 지나가 자국을 표시한 후에 종자넣기를 실시한다.

종자 넣기는 발아가 될 곳을 옆으로 가도록 누어 놓은 후 손가락으로 눌러 종자가 안보일 정도로 눌러 준다.

종자넣기를 다한 후에 관리기로 고랑이 될 곳의 흙을 쳐 올려 종자 위로 흙이 7~10cm가량 덮히도록 하면 매우 편리하다.

흙덮기를 실시한 후에 로울러로 위의 흙을 진압한다. 로울러가

없으면 통으로 된 비닐 혹은 시멘트 연통같은 것을 이용하여 누르며 굴러 준다.

로울러 굴려주기가 끝나면 살충제를 적당량으로 뿌린 후 짚덮기를 실시한다. 짚깔기의 깊이는 7~10cm 정도의 두께로 하면 종자가 얼지 않고 무사히 월동할 수 있다.

파종한 종자는 대부분 겨울동안 발아되어 어린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가 봄에 새싹이 터오르게 한다.

온도를 높여 주기 위하여 비닐지로 피복 혹은 터널을 씌워 주면 일찍 발아되어 늦서리의 피해를 없게 되므로 자연발아가 매우 유리하다.

3) 파종후의 관리

파종후의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짚을 걷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다.

짚을 걷지 않아도 짚 사이로 싹이 터 나올 수 있으며, 좋은 점은 제초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 가뭄 건조에 습도를 유지시켜 주고, 나무의 키자람에 매우 유리하다.

위에서 기술한바 있으나 칠엽수의 조기낙엽예방이 중요하다.

경험에 의하여 7~8월에 잎이 붉게 타는 현상을 주로 탄저병이므로 탄저병약을 1주~10일 간격으로 몇회 살포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9월달에 조기낙엽이 되는 것은 지표면의 습도가 일정하지 못하고 강한 태양열과 복사열의 영향

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토양에 퇴비를 찾아주어 습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 준다. 가능하면 장마후 차광망을 설치하여 주면 매우 효과적이다.

제초작업은 짚을 걷어 주지 않은 관계로 하여 잡초발생이 없어 다른 수종의 묘목생산보다 매우 수월하다.

고랑은 살초제(그라목선, 그라신)과 발아억제제(마세트수화제 등)를 혼합하여 살포하면 발아된 잡초는 전멸하고, 발아가 억제되어 그 효과가 매우 오래 간다.

2. 칠엽수의 성목재배

앞서 논술한 바가 있지만 칠엽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배수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조기 낙엽현상의 원인인 일소피해방지 및 탄저병 예방이라 할 수 있다.

여름철에 잎이 붉게 타며 이따금 죽는 잎이 발생하는 것은 탄저병으로 보아야 한다.

탄저병이 발생하면 1주 간격으로 2~3회 가랑 약을 쳐주면 매우 효과적이다.

일소피해에 의한 조기낙엽방제는 지표면에 퇴비를 깔아주어 심한 건조의 피해와 복사열을 방제한다.

따라서 칠엽수의 거름주기는 반드시 퇴비를 주어야 좋다.

화학비료보다 퇴비에 의해 성장하면 나무가 건강하여 2차로 자란 웃자란 연약한 줄기의 동해 피해도 완전히 적어 진다.

경험에 의하면 칠엽수 1년생 2줄에 단풍나무 1줄을 식재해 준 결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효과가 컸다.

혼식의 잇점은 성장경쟁에 의해 문제가 되는 나무키의 성장을 촉진시켜 주고 일소의 피해를 막아주며 병해의 발생억제에 매우 효과적이다.

물론 칠엽수가 1.5m 가량 성장하면 혼식했던 단풍나무는 먼저 출하하던가, 상태에 따라 칠엽수의 성장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남겨둘 예정으로 한다.

칠엽수의 재배가 다른 묘목에 비하여 가격이 높고, 어려서의 재배가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나무의 키가 1~1.5m 이후의 생장은 매우 좋으므로 다른 수종의 재배보다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파종하여 생산해 놓은 묘목은 한번에 출하하지 말고 매년 솟아가며 출하하고 1년생 묘를 구입하여, 재배할 경우 30cm×50cm 정도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2~3년 기른 후에 정식하도록 한다.

정식하는 경우 가급적 노임을 아끼지 말고 분을 정식으로 떠서 식재하는 것이 인건비는 많이 든다하여도 확실한 일처리이므로 값비싼 나무를 죽이지 않는 좋은 경영이다.

식재거리 1.0m×1.5m 정도이면 근원직경 10cm 이상의 규격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참고한다.